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남궁혜정[†] 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를 구분하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 이 각각의 요인을 가진 집단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하였다. 따라서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를 구분하는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IPS)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총 40문항으로 성취추구와 실패회피의 2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TPS를 타당화하기 위해 TPS와 BDI, BAI, MOCI, RSES, SADS, PANAS, 신체적 증상 그리고 PQ-NC를 295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였다. TPS와 각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실패회피 요인은 우울, 불안, 강박증상, 사회불안, 부적 정동, 신체적 증상, 그리고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적 정동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성취추구 요인은 정적 정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 사회불안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성취추구와 실패회피 점수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 혼합집단, 그리고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실패회피 성향이 높은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과 혼합집단은 우울, 불안, 강박증상, 사회불안, 부적 정동, 신체적 증상 및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자존감은 더 낮았다. 실패회피 성향이 낮은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과 비완벽주의 집단은 우울, 불안, 강박증상, 사회불안, 부적 정동 및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자존감은 더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가 성취추구 요인이나 실패회피 요인과 같은 특정한 요인에 의해 기능적이거나 또는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분리되며 보다는 이 두 요인이 한 개인 내에 공존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 성취추구 완벽주의, 실패회피 완벽주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영호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산43-1
TEL : (02) 2164-4276 / FAX : (032) 345-5189 / E-mail : yhlee@catholic.ac.kr

완벽주의의 개념은 오랜 기간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예 Hollender, 1965; Missildine, 1963; Pacht, 1984), 완벽주의의 다양한 개념과 측정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 Frost, Marten, Lahart 및 Rosenblatt(1990)와 Hewitt과 Flett(1991a)이 개인적·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독립적으로 개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 두 가지 MPS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몇몇 연구자들이 Frost의 완벽주의 척도(MPS-F)와 Hewitt과 Flett의 완벽주의 척도(MPS-H)를 통하여 적응적인 완벽주의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를 구별하고자 하였다(Adkins & Parker, 1996;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Hewitt et al., 1986; Hewitt & Flett, 1991a, 1991b; Lynd-Stevenson & Hearne, 1999; Norman, Davis, Nicholson, Cortese, & Malla, 1998). 이들 연구에서 완벽주의의 차원 중, 일관되게 몇몇 차원은 부적응적인 면을 몇몇 차원은 부분적으로 적응적인 면을 반영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완벽주의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완벽주의를 적응적·부적응적 또는 기능적·역기능적 관점에서 보는 연구에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중 하나는 MPS-F와 MPS-H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본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척도를 제작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새로운 척도 중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에는 Rhéaume, Freeston 및 Ladouceur(1995)이 개발한 완벽주의 질문지(Perfectionism Questionnaire; PQ)가 있다. 이 척도들은 Frost의 MPS를 실수에 대한 염려 차원에 치우친 척도로 보았으며, 이 차원에 치

우치지 않으면서 완벽주의 구성개념 내에서 완벽주의의 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구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질문지는 하위척도인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 척도의 점수가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자는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구별이 단지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정도에 의해 분류되기보다는 두 유형의 완벽주의를 구분짓는 특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Frost 등(1993)^o] MPS-F와 MPS-H를 비교한 연구에서 제안한 부적응적 평가 염려(maladaptive evaluation concern) 요인과 긍정적 성취 욕구(positive striving need) 요인을 근거로, 두 척도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새로운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를 구분하는 척도를 개발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각각의 차원들이 우울, 불안, 강박증상, 자존감, 사회불안, 정적·부적 정동, 신체적 증상 및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결과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각각의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집단간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Fros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이하 MPS-F라고 약함)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의 주된 특징을 자신의 수행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라 보았으며, 심리적인 문제들은 전자보다 후자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를 6개의 차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첫 번째 차원은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로, 이는 성취에 대한 욕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차원은 개인적 기준(personal standard)으로, 자신의 수행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경향과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포함한다. 세 번째 차원은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이고, 네 번째는 부모의 비난(parental criticism)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은 장애의 핵심과 완벽주의의 원인론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차원으로, 완벽주의자들이 부모의 평가적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차원이다. 다섯 번째 차원은 행동에 대한 의심(doubt about action)으로 이는 자신의 수행의 질에 대해 의심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 느낌은 구체적인 실수의 평가나 인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행이 만족스럽게 완수되지 않았다는 느낌과 관련된다. 이 경험은 행동이나 믿음에 관한 불확실감(a feeling of uncertainty)으로서 강박적 사고 경험과 관련된다(Reed, 1985). 여섯 번째 차원은 조직화(organization)로, 완벽주의자들이 질서와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이 각각의 하위차원들과 광범위한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공포증 환자들에게 있어 실수에 대한 염려는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실수를 전반적인 실패의 증후로써 해석하여 그들의 수행에 대한 가치를 감소시키고 더 많은 자기 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ster, Heimberg, Frost, Holt, Mattia, & Faccenda, 1996). 강박증 환자 집단에서도 실수에 대한 염려와 행동에 대한 의심 차원에 있어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ntony, Purdon, Huta, & Swinson, 1998; Frost & Steketee, 1997). 정상 집단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실수에 대한 염려와 행동에 대한 의심은 우울 수준 및 다양한 정

신병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Frost et al., 1990). 반면, 개인적 기준 차원은 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지역행동의 빈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긍정적인 성취의 건강한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효능감을 통제하였을 때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차원이 부분적으로 적응적인 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ost et al., 1990). 이들 연구에서 일관되게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그리고 부모의 비판 차원이 부적응과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ewitt과 Flet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이하 MPS-H라고 약함)

Hewitt과 Flett(1991a)은 각각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 완벽주의적 행동을 하는 대상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그리고 완벽주의적 행동을 귀인시키는 대상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의 세 가지 차원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개발하였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Hewitt & Flett, 1991a), 단순히 실패하지 않으려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서 완벽함을 이루고자 하는 성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타인이 완벽하기를 기대

하며, 타인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차원은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 그리고 신뢰의 부족과 관련되고, 냉소와 고독과 같은 대인관계적 좌절과 관련되며, 부부나 가족문제와도 관련된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이 그들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갖는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각각의 하위차원들과 광범위한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를 살펴보면, Hewitt과 Flett (1993)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모두 우울증과 관련되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단지 성취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성취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모두와 관련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신과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더 심한 유형의 정신병리와 관련됨을 보였고(Hewitt & Flett, 1991a),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생활 스트레스나 부적응적인 대처와 상호작용 할 때만 심한 유형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Hewitt & Dyck, 1986; Hewitt, Mittelstaedt, & Wollert, 1989). 부분적으로 적응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Flett 등(1996)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빈약한 심리 사회적 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높은 수준의 고독, 수줍음, 부정적인 평가에의 두려움, 그리고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존감(social self-esteem)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의 비

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철회하고 회피하는 반응 양식을 보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들은 완벽주의의 하위차원들이 적응적인 면과 부적응적인 면을 반영하는 하위차원들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MPS-F와 MPS-H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두 척도는 문항 내용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유사성을 살펴보자면, MPS-F의 개인적 기준 척도와 MPS-H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모두 개인적 목표와 기준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MPS-F의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척도와 MPS-H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비난한다고 지각하는 점에서 유사하며, MPS-F의 실수에 대한 염려 척도와 MPS-H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문항 내용이 유사하고 실수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도 유사하여, 두 척도가 상당한 측면에서 겹친다는 것을 보인다.

두 척도를 함께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PS-F의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심과 MPS-H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완벽주의 차원들이 우울, 사회불안, 광장공포증, 신체적인 손상, 죽음 그리고 질병에의 두려움과 관련성을 보였다(Enns & Cox, 1999; Saboonchi & Lundh, 1997).

또한 Frost 등(1993)이 MPS-F와 MPS-H를 비교한 연구에서, MPS-F의 6개 하위차원과 MPS-H의 3개의 하위차원을 합한 총 9개의 하위차원을 요인분석 한 결과, 긍정적인 완벽주

의와 부정적인 완벽주의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2요인이 명확하게 나왔다. 첫 번째 요인은 부적응적 평가 염려 요인으로, MPS-F의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 행동에 대한 의심 차원과, MPS-H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이 포함되었고, 우울 및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긍정적 성취 욕구 요인으로, MPS-F의 개인적 기준, 조직화 차원과 MPS-H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요인은 우울이나 부정적 정서와는 관련되지 않았으며 긍정적 정서와 관련되었다. 또한 이 두 요인에 대해 정신과 환자 집단을 사용한 연구에서 부적응적 평가 염려 차원이 긍정적 성취 욕구 차원에 비해 불안과 우울에 많은 관련성을 보였고, 강박증 환자 집단에서 더 많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Norman et al., 1998).

연구 I. 기능적 ·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구분하는 척도 개발

기능적 ·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구분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Frost의 MPS와 Hewitt과 Flett의 MPS를 요인분석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연구에 적합한 문항들을 최종 선정하고자 하였다.

방법
피험자

서울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

인 428명(남 191명, 여 23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82세(표준편차 3.06세)로, 남자의 평균 연령은 22.34세(표준편차 2.81 세), 여자의 평균 연령은 21.4세(표준편차 3.19 세)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Frost 등(1990)이 다차원적 관점에서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써, 총 35 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심,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 조직화의 6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하위 척도중 조직화 척도는 다른 하위 척도와의 낮은 상관으로 인해 선행 연구(Frost et al., 1990)에서는 전체 합산에서 제외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개발을 위하여 조직화 척도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현진원(199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Hewitt과 Flett(1991)이 다차원적 관점에서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써,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 개발의 편리에 위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절차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두 척도(MPS-F와 MPS-H)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소책자로 나누어주고, 이를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문항선정 및 요인구조

완벽주의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80개의 문항에 대해 주축 요인분석(principle axis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21개가 나왔으나, Scree 검사를 통한 고유치의 하락을 고려할 때 5개의 요인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5개, 4개, 3개, 2개로 요인 수를 각각 지정한 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및 사각회전법(direct oblimin)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석가능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할 때 2개의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완벽주의 질문지의 요인을 2개로 정하고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정 문항이 어느 요인에 속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특정 요인에 대해 .3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가진 요인을 포함시켰으며, 특정 요인이 두 요인에서 모두 .3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가질 때에는 보다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요인에 포함시켰다. 이 결과 61문항이 선정되었다. 각 문항들은 문항상관(item total correlation)값, 신뢰도를 고려하여 또 다시 선정되었으며,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4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40

문항에 대해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한 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2요인에 의한 설명변량은 34.65%이었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92였다. 또한 요인 1과 요인 2의 두 요인 간 상관은 .36이었다. 이 질문지의 요인별 요인 부하량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이 요인의 각 문항들은 기존 Frost 등(1993)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요인 1에는 MPS-F의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 행동에 대한 의심 차원과, MPS-H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요인 2에는 MPS-F의 개인적 기준, 조직화 차원과 MPS-H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이 포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이름은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 내용을 고려하여 붙였는데, 전체 변량의 25.58%를 설명하는 요인 1은 '나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문항 32)',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문항 4)' 등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높은 기준을 설정, 조직화와 같이 성취 추구와 관련되는 것들로 이 요인에 대해서는 '성취추구'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요인 2는 9.08%의 변량을 설명하고, '남들만큼 잘 하지 못 한다면, 이는 내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문항 18)',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내게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문항 37)' 등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실패, 실수, 평가와 같은 내용으로, 이 요인은 '실패 회피'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척도의 2 요인은 성취 상황에서의 활동이 성취를 추구하거나 또는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방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고전적인 성취 동기이론가들(Elliot & Church, 1997)의

의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연구 II.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의 타당화

연구 II는 연구 I에서 개발한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와 BDI, BAI, MOCI, RSES, SADS, PANAS, 신체적 증상 그리고 PQ-NC를 다른 독립적인 집단에 실시한 후,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가 적절한 적합도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척도의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이 피험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분류된 집단과 타당도 척도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방법

피험자

서울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95명(남 157명, 여 13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01세(표준편차 2.40세)로, 남자의 평균 연령은 22.45세(표준편차 2.29세), 여자의 평균 연령은 21.51세(표준편차 2.44세)였다.

도구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Two-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이하 TPS라고 약함)

완벽주의의 기능적 특성과 역기능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 I에서 개

발한 척도로써, 총 40문항이며 5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의 2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요인분석에 의한 2요인의 설명변량은 34.65%였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92였다.

TPS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척도들을 함께 실시하였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가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사이며, 현재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 총 2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Beck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Epstein, Brown 및 Steer(1988)에 의해 불안을 변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1992)이 번안한 한국판 Beck 불안질문지를 사용하였다.

MOCI 강박증상 척도(Maudsley Obsessional Compulsive Inventory; MOCI)

조대경(1985)이 번안한 강박증상 척도이다. 외국 연구에서는 확인행동(checking), 청결행동(cleaning), 지연행동(slowness), 의심(doubt)의 4가지 하위척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dgson & Rachman, 1977). 총 30문항이며 진위형으로 응답하며, 조대경은 1주일 간격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 .75를 얻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자기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자존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이 시사되었다.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로서,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SADS는 원래 진위형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편포되는 것을 피하고, 개인간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SAD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정적 정동과 부적 정동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과 Clark, Tellegen(1988) 등이 정적 및 부적 정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형 기분 척도이다. 총 20문항으로 정적 정동(10문항), 부적 정동(10문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유정(199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증상

한덕웅(1992) 등이 작업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이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기 장애, 심장혈관계장애, 동통, 불면증 등의 4개 요인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인(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완벽주의 질문지(Perfectionism Questionnaire; PQ)

Rheaume, Freeston 및 Ladouceur(1995)가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를 구별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이다. 총 64문항으로 완벽주의 성향(10문항), 완벽주의의 영역과 대상(30문항),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24문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현주(199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역기능적 측면만을 참조하기 위해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절차

연구 I에서 개발한 TPS와 BDI, BAI, MOCI,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 SADS, PANAS, 신체적 증상, PQ의 부정적 결과의 9개 척도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소책자로 나누어주고, 이를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

연구 II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 척도의 2 요인모형이 연구

II에서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되는지를 검증하고,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한 대안모형 검증을 위하여 AMOS 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료 상에 무응답치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평균과 절편 추정치(Estimate means and intercepts)를 지정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AMOS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를 평가하기 위해 서 χ^2 검증과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이 사용된다. χ^2 검증은 이론 모형이 관찰된 자료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적합도 지수는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한다. 홍세희(2000)는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 중에서 만족스러운 적합도 지수로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표준부합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 또는 TLI),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를 제안하였다. GFI와 RMSEA는 절대적 부합도지수로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다른 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

가하지 않고, 구조방정식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홍세희, 2000에서 재인용).

둘째, TPS의 하위요인과 타당도 척도들 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에는 SPSS WINDOWS 10.0[®] 사용되었다.

셋째, TPS의 두 요인이 피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 혼합집단, 그리고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타당도 척도가 각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에는 SPSS WINDOWS 10.0[®] 사용되었다.

대안 모형들

확증적 요인분석을 위해 7가지 모형들이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구체화되었다. 각 모형들의 경로도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의 위계적 3 요인구조 모형도 있었으나, 이 모형은 각 요인에 할당되는 문항의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통계적 결함이 있어(Floyd & Wida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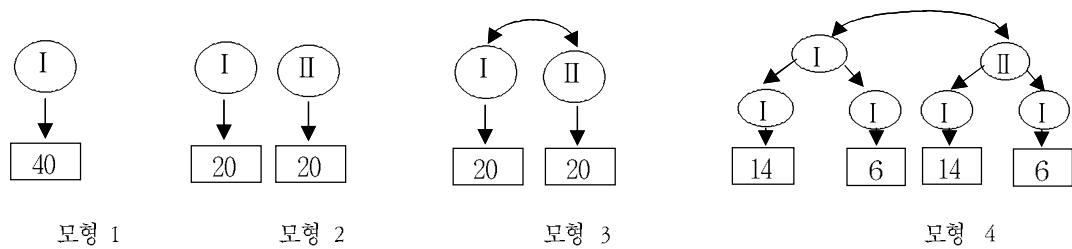


그림 1. TPS의 4개 대안 모형들의 경로도(주, 사각형 안의 숫자는 문항의 개수임)

1995), 대안모형 설정에서 제외하였다.

결과 및 논의

요인구조와 모형의 부합도

연구 I에서 개발한 TPS의 요인구조가 연구 II에서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4.0을 이용하여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잘 설명하는 요인구조를 찾기 위해 대안 모형들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대안모형들의 부합도 지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안모형들을 살펴본 결과, 모형 1은 RMSEA 값이 0.1보다 커서 부적절한 부합도를 나타냈으나, 다른 모형은 보통의 부합도를 보였다. 이로써, 완벽주의를 2 요인구조로 가정한 본 연구의 요인모형의 부합도는 적절하였으며,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이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모형 3과 두 요인이 각각 2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모형 4를 비교한 결과, $\Delta\chi^2(df=4, N=295) = 463.88, p < .001$ 이었으며 RMSEA, TLI, CFI 값의 비교에서도 모형 4가 연구 II의 자료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져 TPS는 위계적 2 요인모형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PS와, BDI, BAI, MOCI, RSES, SADS, PANAS, 신체적 증상 PQ 의 부정적 결과 점수간의 상관관계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TPS), 우울(BDI), 불안(BAI), 강박증상(MOCI),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RSES), 사회불안(SADS), 정적 정동 및 부적 정동(PANAS), 신체적 증상, 그리고 PQ의 부정적 결과 척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의 두 요인 간에 서로 중등도의 상관이 있었다. 또한 실패회피 요인은 BDI, BAI, MOCI, SADS, NA, 신체적 증상, 그리고 PQ-NC와는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고, PA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성취추구 요인은 PA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BDI와 SADS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두 요인 모두 BA와 MOCI, 신체적 증상, 그리고 PQ-NC에서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취추구의 동기를 갖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불안을 갖지만, 우울, 자존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정적 정동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실패회피의 동기를 갖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울, 불안, 사회불안을 경험하며 낮은 자존감과 부적 정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

표 1. TPS와 대안 모형들의 부합도 지수

모형	χ^2	df	RMSEA	TLI	CFI
모형 1	3240.68	740	.107	.904	.913
모형 2	2768.77	740	.097	.922	.930
모형 3	2630.94	739	.093	.927	.934
모형 4	2167.06	735	.081	.948	.950

표 2. TPS와 타당도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성취 추구	실패 회피	BDI	BAI	MOCI	RSES	SADS	PA	NA	신체적 증상	PQ- NC
성취추구	1.000										
실패회피	.603**	1.000									
BDI	.111	.420**	1.000								
BAI	.161**	.402**	.547**	1.000							
MOCI	.342**	.472**	.494**	.509**	1.000						
RSES	-.020	-.358**	-.465**	-.361**	-.231**	1.000					
SADS	.045	.317**	.346**	.329**	.291**	-.475**	1.000				
PA	.287**	.074	-.175**	-.108	-.060	.329**	-.332**	1.000			
NA	.197**	.410**	.558**	.597**	.376**	-.407**	.326**	.043	1.000		
신체적증상	.171**	.326**	.492**	.674**	.379**	-.363**	.302**	-.130**	.559**	1.000	
PQ-NC	.539**	.693**	.417**	.392**	.586**	-.400**	.395**	.006	.424**	.347**	1.000

** $p < .001$

BDI : Beck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AI : Beck의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MOCI : MOCI 강박 증상 척도(Maudsley Obsessional Compulsive Inventory)

RSES :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SADS :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PA : 정적 정동 목록(Positive Affect Schedule)

NA : 부적 정동 목록(Negative Affect Schedule)

신체적 증상 : 신체적 증상 척도

PQ-NC : 완벽주의 질문지의 부정적 결과(Perfectionism Questionnaire)

로 보인다. 또한 이 두 요인이 모두 불안과 강박증상,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은, 두 요인 모두 어느 정도의 불안을 야기 시키고 꼼꼼 하려는 특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자각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군집분석을 통한 집단 분류와 각각의 집단간의 차이 비교

연구 I에서 개발한 TPS가 피험자들에게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method of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의 군집이 루였으나, 계수(coefficient)를 살펴본 결과 3개와 4개의 군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바, 군집 수를 3개, 4개로 각각 지정한 후 비계층적 군집분석(non-hierarchical method of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표준화 점수를 살펴본 결과, 4개의 군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4개 군집의 표준화 점수와 변량분석 값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비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군집				F 값	유의도	사후검증 ¹⁾
	1	2	3	4			
Z점수(성취추구)	1.407	.315	-.059	-1.130	298.549	.000	1>2>3>4
Z점수(실패회피)	1.208	-.431	.816	-.929	250.057	.000	1>3>2>4

1) 집단별로 폐험자수가 동일하지 않아 Dunnett T3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4. 집단 간 차이를 위한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변량원	SS	MS	df	F	사후검증 결과 ¹⁾
우울	1761.99	587.33	3	9.17***	3>1>4, 3>2>4
불안	2512.79	837.60	3	9.52***	3>1>4, 3>2>4
강박증상	1177.566	392.52	3	19.79***	1>3>2>4
자존감	431.30	143.77	3	7.67***	2>4>3
사회불안	4592.23	1530.75	3	6.22***	1>3>2, 3>4>2
정적 정동	1161.54	387.18	3	5.82**	1>3>4
부적 정동	1563.81	521.27	3	8.38***	3>1>4, 3>2>4
신체적 증상	4571.04	1523.68	3	8.27***	3>1>2>4
부정적 결과	81409.13	27136.38	3	63.54***	1>3>2>4

*** $p < .001$ ** $p < .01$

1. 혼합집단, 2.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 3.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 4. 비완벽주의 집단 > 표시는 0.05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미함을 나타냄.

1) 집단별로 폐험자수가 동일하지 않아 Dunnett T3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4개의 군집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데, 군집 1은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의 점수는 모두 높은 집단, 군집 2는 성취추구 요인의 점수는 높고 실패회피 점수는 낮은 집단, 군집 3은 성취추구 요인의 점수는 낮고 실패회피 요인의 점수만 높은 집단, 군집 4는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군집 1은 혼합 집단, 군집 2는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 군집 3은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 군집 4는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네 집단이 부적응과 각각 어떤 양상을 보이며, 어느 집단에 의해 집단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값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집단간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타당도 척도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을 중심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

음이 보였고, 이 특성은 특히 실패회피 요인과 관련되었다. 실패회피 요인의 점수가 높은 집단, 즉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과 혼합집단은 성취추구 요인의 점수에 관계없이 우울, 불안, 강박증상, 사회불안, 부적 정동, 신체적 증상, 그리고 PQ의 부정적 결과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자존감은 더 낮았다. 이에 비해 성취추구 요인의 점수가 높은 집단, 즉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과 혼합집단은 우울, 불안, 강박증상, 사회불안, 부적정동,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자존감은 더 높았다.

실패회피 요인의 점수가 높은 집단을 좀더 살펴보면,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은 혼합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부적정동, 신체적 증상의 수준이 높았으며, 혼합집단은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 강박증상, 사회불안, 정적 정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혼합집단이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을 더 불편하게 느끼면서도 매사에 꿈꿔하게 일을 처리하지만, 동시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패회피 요인의 점수는 낮은 집단, 즉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과 비완벽주의 집단을 살펴보면,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은 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강박증상, 부적 정동, 신체적 증상,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높았으나, 사회불안은 낮고 자존감의 수준은 높았다. 반면, 비완벽주의 집단은 사회 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므로 강박증상, 신체적 증상 그리고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완벽주의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성취추구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으면서 실패에 대한

염려를 덜 하는 완벽주의자들은 비교적 심리적 고통을 적게 느끼면서 자존감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취추구의 경향성과 관계없이 실패에 대한 염려를 하는 완벽주의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저하된 듯 보인다.

또한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 두 요인에서 동시에 높은 점수를 갖는 혼합집단이 분류된 것은, 이제까지 MPS-P와 MPS-H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몇몇 차원은 적응적인 면을 몇몇 차원은 부적응적인 면을 반영한다고 보고, 완벽주의를 적응적·부적응적 또는 기능적·역기능적 차원으로 나누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므로 TPS는 완벽주의를 기능적·역기능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완벽주의를 동기적 측면에서 성취추구 완벽주의와 실패회피 완벽주의로 분류하였으며, 이 각각의 차원은 완벽주의에서 각기 나누어 설명되는 것이 아닌, 동시에 공존하는 개념으로 밝혀졌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구별이 단지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정도가 아닌 두 유형의 완벽주의를 구분 짓는 특성들을 통해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를 구분하는 질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각각의 차원들이 우울, 불안, 강박증상, 자존감, 사회불안, 정적·부적 정동, 신체적 증상,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결과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이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I에서는 Fros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F)와 Hewitt과 Flet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H)를 같이 상시하여,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분류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Frost 등(1993)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인 1 요인에는 MPS-F의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 행동에 대한 의심 차원과 MPS-H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의 문항이, 그리고 2 요인에는 MPS-F의 개인의 기준, 조직화 차원과 MPS-H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TPS의 하위요인에 대한 명칭은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의 내용과 성취 상황에서의 활동이 성공을 추구하거나 또는 실패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고전적인 성취 동기이론가들(Elliott & Church, 1997)의 제안에 기초하여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II는 연구 I에서 개발한 TPS를 티당화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TPS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대안모형들을 함께 검토한 결과, 단일차원의 구조모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차원 구조가 더 적절한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의 요인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각각 조직화 요인과 목표설정 요인 그리고 실수염려 요인과 부모의 기대 요인의 하위요인을 갖는 TPS의 위계적 2 요인모형을 검증한 결과, 연구 II의 자료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에 대한 3

요인모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는 캐이하의 문항을 포함하는 하위차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안모형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TPS에는 성취추구 요인이 조직화 요인과 목표설정 요인의 2 요인구조를 갖고, 실패회피 요인이 실수염려 요인과 부모의 기대 요인의 2 요인구조를 갖는 위계적 2 요인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분석 결과, 성취추구 완벽주의자는 어느 정도의 불안을 보이지만 정적 정동도 함께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패회피 완벽주의자는 우울, 불안, 사회불안을 많이 보이며 자존감이 많이 저하되고 정적 정동보다는 부적 정동을 느끼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요인 모두 불안, 강박증상,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불안과 강박증상이 완벽주의의 공통적인 특성이며, 이들은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자각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 성취추구·실패회피 요인이 동시에 높은 혼합집단, 그리고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패회피 성향이 높은 두 집단인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과 혼합집단은 실패회피 성향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높은 강박증상과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고 부적 정동과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패회피 성향이 낮은 두 집단인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과 비완벽주의 집단은 실패회피 성향이 높은 집단에 비해 덜 우울하고 불안하며 또한 낮은 강박증상과 부적 정동을 보이며, 높은 자존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강박증상, 신체적 증상,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완벽주의 집단과 비완벽주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강박증상과 신체적 증상이 완벽주의의 공통적인 특성이고,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상관분석 결과에서 이 세 척도가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 모두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비완벽주의 집단은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정적·부적 정동 모두 덜 느끼고, 성취추구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사회불안을 보였다. 이는 비완벽주의 집단이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정서적인 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완벽주의가 그 자체로 병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완벽주의를 결과적 측면이 아닌 동기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성취 상황에서의 활동을 성취를 추구하거나 또는 실패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에 따라 성취추구 완벽주의와 실패회피 완벽주의로 나눔으로써, 완벽주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둘째, TPS의 하위 요인인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은 피험자들에게서 각각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으로써 완벽주의가 특정 요인에 의해 기능적이거나 또는 역기능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동시에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연구 I과 연구 II에서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보인 점과 연구 II의 군집분석 결과에서 두 요인의 점수가 동시에 높은 혼합집단이 나타난 점이 이런 특징을 시사한다.

셋째, 완벽주의 집단에서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련은 성취추구 요인보다 실패회피 요인에 의해 더 특징 지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두 요인 점수가 동시에 높은 혼합집단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혼합집단은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과 비교할 때 정적 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에서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함께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TPS의 위계적 2 요인모형에 대한 연구가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형검증 결과,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 각각이 단일한 차원을 갖는 2 요인모형에 비해 각각의 요인이 하위요인을 갖는 위계적 2 요인모형이 더 적절한 부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완벽주의에서 각각의 하위요인이 하는 역할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좀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TPS의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에 대한 특성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군집분석 결과, 성취추구 요인과 실패회피 요인이 모두 높은 점수를 갖는 집단이 분류되었고, 또한 혼합집단과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은 자존감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에서 일관되게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혼합집단에서 성취추구 요인이 하는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실패회피 완벽주의 집단과의 차이를 좀더 분명히 밝히고, 이를 치료요인으로서 활용한다면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는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취추구 상황과 실패회피 상황에 대한 실험과제를 사용한다면, 두 요인이 갖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집단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좀더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이 보고하는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실제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는 것인지, 그렇게 지각하는 것인지 를 경험적으로 확인한다면 이들의 인지적인 기제를 좀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들이 대학생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일반인 집단과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도 성취추구 완벽주의, 실패회피 완벽주의 그리고 혼합집단이 잘 분류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성취 활동과 관련이 덜한 환자 집단 등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6). 우울과 불안의 관계. *심리과학*, 5(1), 13-38.
- 김정인 (1997). 부적 정동과 사회적 기대가 직무 스트레스와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현주 (1999).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구분 및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성은, 권정혜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 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 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67-84.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척도 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유정 (1994). 성격특질이 기분의 수준 및 변화 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D-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277-290.
- 조대경 (1985). 강박행동의 객관적 측정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0(1), 78-90.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dkins, K. K., & Parker, W. D. (1996). Perfectionism and suicidal preoccu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4, 529-543.
- Antony, M. M., Purdon, C. L., Huta, V., & Swinson, R. P.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cross the anxiety disor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1143-1154.
- Elliot & Church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18-232.
- Enns, M. W., & Cox, B. J. (1999).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symptom sever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783-794.
- Flett, G. O., Hewitt, P. L., Blankstein, K.,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61-68.
- Flett, G. O., Hewitt, P. L., & Rosa, T. D.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143-150.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 286-299.
- Frost, R. O., & Marten, P. A. (1990).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559-572.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erg,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Frost, R. O., & Steketee, G. (1997). Perfectionism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ati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291-296.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7-142.
- Hewitt, P. L., & Flett, G. L. (1991b).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8-101.
- Hewitt, P. L., & Flett, G. L. (1991a).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ewitt, P. L., Mittelstaedt, W., & Wollert, R. (1989). Validation of a measure of perfection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133-144.
- Holla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 94-103.
- Juster, H. R., Heimberg, R. G., Frost, R. O., Holt, C. S., Mattia, J. I., & Faccenda, K. (1996). Social phobia an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403-410.
- Lynd-Stevenson, R. M., & Hearne, C. M. (1999).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affect: The pros and cons of being a perfectionis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549-562.
- Missildine, W. H. (1963).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New York: Simon & Schuster.

- Norman, R., Davis, F., Nicholson, I. R., Cortese, L., & Malla, A. K. (1998). The relationship of two aspects of perfectionism with symptoms in a psychiatric outpatient popul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 50-68.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Rhéaume, J.,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5).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construct validity of a new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the 1st annual World Congress of Behavioral Cognitive Therapy, Copenhagen, July 1995.*
- Saboonchi, F., & Lundh, Lars-Gunnar. (1997). Perfectionism, self-consciousness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 921-928.

원고접수일 : 2005. 8. 18

게재결정일 : 2005. 9. 2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wo-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ye-Chong Namgung

Young-Ho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o distinguished betwee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lso, to investigate various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perfectionist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ts. The aim of Study I was to develop a Scale to distinguished betwee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This Scale was consisted of achievement striving factor and failure avoidant factor. The aim of Study II was to validate a Two-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TPS) by Study I to classify groups through the cluster analysis and to investigate various characterisitics of groups. Failure avoidance factor of TPS correlated positively with depression, anxiety,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social anxiety, negative affect, somatic symptom, and negative consequence of PQ. It was not related with positive affect. On the other hand, achievement striving factor of TPS correlated positively with positive affect. It was not related with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Subjects were classified with achievement striving perfectionist, failure avoidant perfectionist, mixed-perfectionist, non-perfectionist by the cluster analysis. Failure avoidant perfectionism group and mixed group were reported higly to depression, anxiety,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social anxiety, negative affect, somatic symptom, and negative consequence of PQ. They were reported lowly to self-esteem. Achievement striving perfectionism group and non-perfectionism group were reported lowly to depression, anxiety,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social anxiety, negative affect, and negative consequence of PQ. In summary, the result indicated that perfectionism has multi-aspect than divided to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aspec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two-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achievement striving perfectionism, failure avoidant perfectionism

부록. 완벽주의 질문지의 각 요인별 해당 문항의 요인부하량

요인 1. 성취추구 요인		요인 2. 실패회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문항	요인 부하량
1.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661	3. 만일 내가 직장이나 학업에서 실패한다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이다.	.501
2.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524	10.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비록 나타내지는 않지만 매우 실망할 것이다.	.363
4.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679	13.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결코 나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363
5.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목표를 높게 잡는다.	.418	14. 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게 볼 것이다.	.476
6. 나는 일을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594	7. 나의 가족은 내가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369
7. 나는 가능한 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657	18. 남들만큼 잘 하지 못한다면, 이는 내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602
8. 나 스스로에게 상당히 높은 기준을 부과하지 않으면, 나는 시시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다.	.396	19. 우리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든 뛰어나게 잘 해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588
9. 나는 학업에서나 일에서나 항상 성공해야만 한다.	.491	23. 내가 항상 잘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523
11.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완벽해지는 것이다.	.506	24. 내가 실수를 적게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396
12. 나의 목표는 모든 일에서 완벽해지는 것이다.	.547	25.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을 때, 나는 그 일 전체를 다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652
15. 나는 깔끔하게 정돈하는 사람이려고 노력한다.	.572	26. 나는 신중하게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328
16. 나는 아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571	28. 무슨 일을 내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	.311
20. 나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한다.	.572	30. 나의 부모님은 나의 실수를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셨다.	.539
21.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다.	.550	31. 나는 결코 부모님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495
22.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한다.	.396	33. 나의 부모님은 내 장래에 대해 늘 나보다 높은 기대를 갖고 계셨다.	.335
27. 매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458	34.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최고의 것이어야 한다.	.360
29. 나는 목표를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	.659	35. 내가 실수를 하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453
32. 나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란다.	.717	37.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내게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701
36.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589	39. 나의 부모님은 모든 면에서 내가 최고이길 바라셨다.	.402
38.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낸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642	40. 일을 자꾸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384
설명변량	25.58%	설명변량	9.08%